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457.4	16.2	119,500	2.1	9.1	-7.7	-7.0	83.3	39.9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366.4	21.0	329,500	-0.6	5.8	-6.1	-4.8	4.4	3.7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395.9	6.1	19,450	-0.3	5.7	-29.1	-12.4	1.8	1.6	0.2	0.1	9.3	9.7
현대건설기계	844.2	12.0	42,850	1.8	1.1	-15.5	0.4	2.7	2.0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5,052.6	19.9	8,020	0.9	4.8	-12.1	8.2	50.6	25.1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419.9	12.2	31,900	-0.6	15.4	11.1	-6.6	11.2	11.2	0.9	0.8	9.0	6.9
현대미포조선	2,017.1	13.7	50,500	2.4	0.8	-13.7	-15.8	10.9	7.9	0.4	0.4	3.6	4.8
한진중공업	538.8	20.4	6,470	-0.2	-21.3	8.7	-21.8	130.2	32.5	0.9	0.9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533.9	21.4	93,300	4.4	12.5	12.8	-12.8	16.5	16.0	2.3	2.0	14.6	13.3
두산밥캣	3,598.9	25.6	35,900	1.7	12.5	15.6	14.0	13.1	12.4	1.0	1.0	7.4	7.6
현대로템	1,865.8	3.9	21,950	1.9	10.9	-1.6	-21.2	28.3	19.3	1.3	1.2	4.5	6.3
하이룩코리아	228.7	46.8	16,800	-0.9	-3.2	-11.3	2.1	7.6	7.0	0.6	0.6	8.8	9.0
성광밴드	308.9	18.7	10,800	1.4	-0.9	-1.4	-5.3	954.7	38.7	0.7	0.7	0.1	1.8
태광	270.3	11.8	10,200	-0.5	-3.3	-9.7	-12.8	60.9	29.7	0.6	0.6	1.0	2.1
두산중공업	1,354.4	12.7	6,700	2.3	5.8	-3.5	-20.2	-20.1	23.3	0.3	0.4	-0.1	4.5
두산인프라코어	1,392.6	16.9	6,690	1.2	0.6	-13.3	-11.9	4.6	5.0	0.7	0.7	17.7	13.2
HSD엔진	129.5	3.3	3,930	-0.5	0.8	-22.5	-25.6	-10.3	-7.6	0.5	0.8	-4.7	-8.9
한국항공우주산업	3,533.5	17.0	36,250	0.1	16.2	-2.0	13.6	52.9	23.7	3.2	3.0	6.1	12.8
한화테크윈	1,657.7	15.0	32,150	-2.0	7.9	-7.6	-1.1	133.2	24.4	0.7	0.7	0.6	2.9
LIG넥스원	741.4	7.4	33,700	-0.7	-2.3	-5.1	-8.8	77.6	N/A	1.5	N/A	2.4	2.4
태웅	212.1	4.2	10,600	2.4	13.5	4.4	1.0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52.6	6.5	9,360	0.1	-6.1	3.5	21.2	-19.7	14.5	3.4	2.8	-16.2	15.8
한국가본	380.3	15.4	8,650	-0.8	1.3	-1.6	22.9	134.7	28.4	1.2	1.2	0.9	4.3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Anadarko sanctions Mozambique LNG

Anadarko Petroleum은 Mozambique LNG에 대한 FID(최종투자결정)를 내림. Area 1 Mozambique LNG 프로젝트의 첫 train 2기 생산량은 연간 1,288만톤으로, 총 투자규모는 200억달러에 달함. 발주처를 인수한 Occidental은 최근 Total에 Area 1 Mozambique LNG 프로젝트를 포함한 Upstream 자산을 2020년까지 매각하기로 계약함. (Upstream)

현대중, 윤봉길합 납품 지연 일부 승소... "배상금 부담하게 과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현대중공업에 약 19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 현대중공업은 윤봉길합에 대해 지체유발에 대한 배상액과 이자로 방위사업청에 354억원을 납부함. 법원은 현대중공업의 납품 지연일 185일 중 66일은 현대중공업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함. (뉴스1)

현대오일뱅크 회사채 3,000억 또 발행...IPO실패 후 크게 늘려

현대오일뱅크는 7월 목표로 5년, 7년, 10년 만기로 나눠 2,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추진함. 시장 수요에 따라 최대 3,000억원까지 조달을 추진할 계획임. 현대오일뱅크는 18년 두 차례에 걸쳐 회사채 3,500억원을 발행, 올해는 7월까지 5,000억원 가량 발행함. 확보한 자금은 차환과 운영자금에 사용할 계획임. (서울경제)

산유국 'LNG선 발주' 쏟아진다...조선 빅3, 하반기 '수주레일' 탄력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QP는 LNG선 40척 발주를 준비, 입찰에는 조선 3사와 중국 후동중화조선, 일본 이마바리조선이 참여했다고 알려짐. 카타르는 LNG선 인도를 2023년 이후에 인도 받길 원하지만, 건조기간 2년을 감안하면 도크 슬롯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 시점에 발주를 준비함. 이는 전세계 LNG선 발주 속도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데일리)

Argentina LNG emerging as potential Asia supply source

Wood Mackenzie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잠재적으로 아시아에 LNG를 공급하는 주요업체가 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여름에 피크를 기록하는 LNG 생산량은 아시아의 겨울 LNG 수요와 일치함. 또 아르헨티나는 정체되는 파나마 운하를 피할 수 있어 미국보다 운반비용이 저렴함.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대규모 생산할 전망이다. (TradeWinds)

Vilma Oil, KSS해운 현대중VLGC 발주 도와

스페인 에너지 회사 Vilma Oil이 KSS해운을 도와 최근 현대중공업에 8.4만CBM급 VLGC 1+1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Vilma는 선박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동시에 5+2년의 장기용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4,980만달러의 운임수입을 보장함. Vilma는 18년 노르웨이 Solvang이 현대중공업 발주한 VLGC 1척에 대한 지분도 확보함. (선박뉴스)